

창립26주년 기념사

존경하는 인천의 소기업·소상공인 여러분,
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.

인천신용보증재단이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았습니다.
지난 26년 간 소기업·소상공인 여러분의 변치 않는 믿음을
등에 업고 임직원 여러분이 불철주야 노력해 주었기에,
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인천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
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.

재단 26주년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상공인 종합지원
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.
사옥 이전을 기점으로 재단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이에 재단은 인천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
자금유동성을 해결하는 보증지원을 적극 수행하는 것은 물론, 소상공인
생존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와 교육 등 종합지원 공급을 확대하고,
인천 맞춤형 상권분석 시스템 도입과 사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각종
조사연구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

올해 초 이루어진 점단지점과 소상공인 드림카페 개설은
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지점은 단순 영업점을 넘어
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과 지역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
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정보와 비전을 교환하는 교류장이
될 것입니다.

이와 같은 발전을 이루어감과 더불어 높은 물가, 원자재 가격 상승, 내수소비의 위축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해결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.

따라서 우리 재단도 경영혁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. 기존 보증상품 설계, 채권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본재산 확보, 채권관리, 보증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혁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태도와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.

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안 되는 이유 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.

창업지원에서 재창업, 재기지원까지.

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다각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,

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지지와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 덕분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,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,

감사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
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